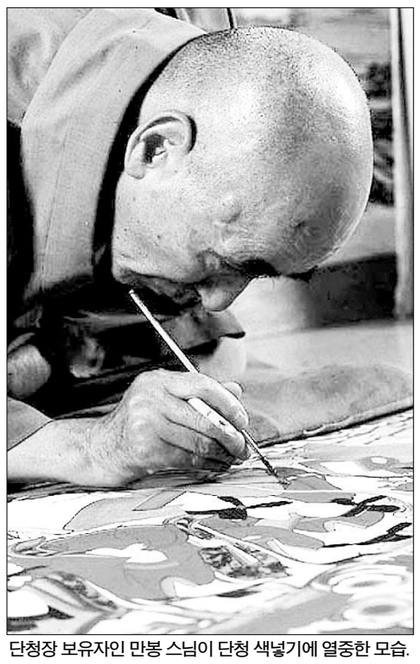
불교무형문화재 전승 · 보존 이대로 안된다 上 / 불교계 관심과 지원 현주소

불교문화 골격 지탱할 '힘'이 없다

기능전수 · 학술조명 뒷받침 제도 미약
'인재불사' 사각지대 … 행정절차 복잡


단청장 보유자인 만봉 스님이 단청 색넣기에 열중한 모습.

문화재청은 1월 12일 2004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간문화재)와 보유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각각 90만원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10월부터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21세기에 걸맞는 무형문화재 운영 ·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유네스코(UNESCO) 역시 10월 제32차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택, 세계유형문화유산과 함께 세계무형문화유산 제도(현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프로그램)를 운영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종묘제례악'에 이어 '판소리'가 지난해 유네스코 무형유산 걸작에 선정돼 영산재 등의 등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불교계 외부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불교계는 아직도 무형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걸음마 수준의 인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불교무형문화유산의 보존 · 전승 현황과 문제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2회에 걸쳐 살펴본다.

무관심에 노력도 없어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불교 무형문화유산에는 단청장(제48호), 영산재(제50호), 목조각장(제108호), 대목장(제74호), 각자장(제106호), 주철장(제112호), 승무(제27호) 등이 있다. 이외에 지정돼 있지 않은 지화 장엄, 사찰 학춤, 사찰 음식 등을 포함하면 불교 무형문화유산은 무궁무진하다.

대목장은 전통사찰 건축양식 보존을 위해, 각자장은 세계 최고(最古)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역시 최고(最高)인 <팔만대장경>의 명맥을 잇기 위해, 주철장은 21세기 에밀레종 소리를 만들기 위해 불교계가 보존에 적극 나서야할 분야들이다. 공예계에서는 이들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분야로 평가되지만, 불교계 내부의 노력은 전무하다. 불교무형문화재를 통틀어 단청장이나 영산재를 제외한 나머지는 장인들 개인의 노력에 의해 전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이들은 '불교계'라기 보다 '공예계'에 가깝다.

조사 · 연구 미비

이런 실정이다 보니 이들 무형문화에 대한 역사적 기원이나 원형 복원을 위한 조사자료도 부족하다. 기본 자료 조사에서 활용연구까지 연구자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범종 복원의 경우, 주철장 보유자인 원광식 씨는 오래전 맥이 끊긴 전통적인 밀랍 주조 방식을 복원했다. 그러나 원 씨가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전통 범종 주조기법을 복원하는 동안 불교계는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2002년부터 조계종은 전통 불교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화 장엄 장인을 발굴, 제작 과정을 자료로 남겼다. 올해에는 통도사를 중심으로 전래되는 사찰 학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이외의 불교 무형문화 보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다. 물론 지금까지도 없었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유형 성보 문화재에 비해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며 "현재 불교계와 별개로 운영되는 무형문화 보존 단체를 조계종 문화단체로 등록해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자 지정 공백 맥 끊어질 우려

영산재는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50호로 지정된 이후 벽응, 송암, 일응, 지광 스님이 보유자로 지정됐으나, 최근 몇 년간 보유자였던 스님들이 모두 입적해 보유자 가운데 생존인물이 없어 그 맥이 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돼 왔다.

현재 구해, 일운, 송강, 기봉 스님이 전수교육보조자로 영산재 보존회를 중심으로 그 맥을 잇고 있지만, 보유자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조현중 사무관은 "현재 영산재 보유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면밀한 검토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유자 선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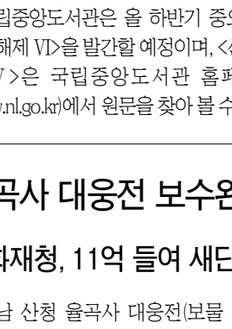
자격시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경우 보유자 지정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이다. 일단 보유자로 지정되면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1996년에는 사기장 지정을 둘러싸고 금품 수수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97년에는 단청장 지정 조사에서 보유자 후보의 친형이 자격심사에 참여해 입방아에 오를 만큼 객관성 시비는 계속돼 왔다. 한 단청장 전수교육보조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제 3자의 눈으로 봤을 때도 경력 · 실력 · 인격의 3가지 면에서 보유자 등 각각의 위치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보유자 지정 과정에서 자격시비가 없을 때 비로소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며 객관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희귀고서 해제본 발간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 V' 펴내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고서 229종 633책에 대한 해제와 사진을 함께 수록한 <선본해제 V>을 발간했다.

<선본해제 V>에는 1451년(문종 1년) 목판본으로 간행된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과 보물 제965호인 <육경합부>도 수록돼 있다. <육본합부>는 조선 인수대비가 <금강반야바라밀경>, <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 <불설아미타경>,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 <대불정수능엄신주>, <관세음보살예문> 등 6가지 경전을 모아 인출(印出)한 것을 말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올 하반기 중으로 <선본해제 VI>을 발간할 예정이며, <선본해제 V>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에서 원문을 찾아 볼 수 있다.

율곡사 대웅전 보수완료

문화재청, 11억 들여 새단장

경남 산청 율곡사 대웅전(보물 제374호)이 2년여 동안의 보수공사를 마쳤다.

문화재청은 1월 14일 2001년 6월 말 10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에 착공했던 율곡사 대웅전의 해체보수 · 단청공사를 지난해 12월 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多包係) 건물로 내부에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봉안하고 있는 조선 중기 건물이다.

해체 과정에서 대웅전의 어칸 종도리 하부에서 '康熙 十八年 己未月日 上樑記(강희 십팔년 기미월일 상량기)'라고 적힌 묵서명 기록이 나와 대웅전이 조선 숙종 4년에 대대적으로 중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28>

생명, 우주 그리고 불교

연기적 인과 초월한 세계는 없나?
조건에 지배 안되는 '열린세상' 보라

지금까지 말했듯이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연기적 세상이란 '부증불감'이라는 닫힌 세계 내에서만 성립되는 모습이다. 한편, 닫혀있다는 것은 특정 조건이 성립되는 한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연기적 인과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열린 세상은 없는가?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빅뱅(Big Bang)을 들고 있다. 태초에 무한 질량의 작은 한 점에서 시작된 큰 폭발로 우주가 생겨나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치 손전등을 켰을 때 작은 전구로부터 빛이 양쪽으로 널리 퍼져가듯이 말이다. 이 팽창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역사가 탄생하고, 빛의 속도라는 제한 요소 안에서 팽창하는 우주의 범위가 형성되고 있음은 영국의 호킹 박사가 쉽게 설명해 주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속도라는 경계로 만들어진 이 한정된 우주 속에서 성립되는 연기적 세상은 인과적이고 논리적이며 그래서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세계이다.

그러면 이 빛의 속도를 뛰어 넘어 펼쳐질 수 있는 우리의 우주 밖의 세상은 어떨까? 그 세계는 말로 이루어진 우리의 닫힌 연기적 세계도 포용하고 있을 커다란 우주일 것이다. 과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불행히도 합리적 이성과 논리에 의거한 과학은 결코 그것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곳은 인과가 떨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기에 논리가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말로 정리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과 선사들의 표현을 보면 닫힌 세계를 뛰어 넘어 넓은 열린 세계를 전해주고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닫혀있다는 것은 그 상태를 규정하는 조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연기적인 세계 속에서는 '없다'는 말이 '있다'의 반대말이다. 하지만 열린 세계에서는 그 세계를 규정하는 조건 자체가 없기에 '있다', '없다'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경이나 이러한 세계를 알아차린 선사들은 굳이 우리의 말을 이용해 '있다'는 것을 뛰어넘은 무언가를 표현할 때 '없다'가 아니라 '있지 않다'라고 표현한다. 깨어있는 자는 이 뜻을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없다'라는 말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 옛날 양무제도 달마대사의 그 넓은 '알지 못한다(磨云, 不識)'를 오직 연기적 작용만 아는 길들여진 자신의 좁은 안목으로 받아들여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듯 알고 보면 '모른다'와 '알지 못한다'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이다.

이 세계를 선사(禪師)들은 말을 떠난 자리라 굳이 표현했다. 아니 말로 갈 수없다 했다. 그것은 생명(生命)의 자리이다. 비록 생명체(生命體)는 연기적 작용이 성립하는 닫힌 세계 속에서 펼쳐지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윤회를 거듭하지만, 이 몸이라는 사대(四大), 육근(六根)에 길들여지지 않은 생명의 본 자리(本面目)는 중중무진 끝없이 펼쳐진 열린 세계 속에 있는 것이다. 그 맛을 알아야 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제1회 불교 어린이 천문학 교실

- 마음이 큰 아이들이 천재다 -

아이들은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여 생각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첨단과학인 천문학을 통해 저 광대무변한 우주를 바라보게 하여 도솔천 · 도리천 · 사왕천 등 불교경전에 나오는 여러 하늘나라가 실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별 저 별을 마음껏 쏘다니게 하여 진정한 자유가 무엇임을 알게 하며, 수 십 년 수행하여 얻은 것 보다 더 큰 「열린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그들에게 달렸습니다. 이 번 제1회 <어린이 천문학교실>을 놓치지 마세요. 천문학은 모든 교육에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문학교실은 엄마와 함께 해요.)

✱ 기 간 : 2004년 2월 4일(水) ~ 2월 6일(金) - 2박 3일 - (2월 4일 11:00까지 도착, 점심공양은 수행원에서)
✱ 장 소 : 도피안사 내 「파라미타수행원」
✱ 교 육 비 : 150,000원(1인, 교재비 포함)
✱ 인 원 : 약 30명(접수 순에 의함, 단 보호자와 함께 하는 경우 우선)
✱ 대 상 : 초등생과 그 어머니(중, 고생 및 일반도 가능)
✱ 천체관측 : 별, 달, 행성 1. 밤 별 보기 - 19:00 ~ 23:00 2. 새벽 별 보기 - 04:00 ~ 06:00
✱ 강 의 : '별의 세계와 불교의 우주관'
✱ 비디오 감상 : '우주의 신비'
✱ 지 도 : 이시우 박사(관측천문학, 前서울대 교수)
✱ 교 통 편 : 어머니(보호자)와 함께 개별도착(당일, 오전 11시까지)
✱ 담 당 : 혜관거사 박성근(도피안사 사무장)
✱ 준 비 물 : 방한모, 장갑, 양말, 방한화(천체관측 때 춥지 않게)
✱ 연 락 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전화) 031-676-8700 (전송) 031-676-8704
(E-mail) dopiansa@kornet.net

주최 : 도솔산천문대 주관 : 파라미타수행원

건강 100% 적중

냄새를 완전 제거하여 놀라운 효능을 갖춘 식품이면서
"여성생활에도 으뜸"이 되고 있는 토종마늘환(丸)

마늘이 좋은걸 알면서 냄새때문에 망설인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토종마늘은 예로부터 '일해백리'의 식물로 불려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백가지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때문인데, 이 알리신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활성화 시켜 줍니다. 마늘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은 몸에 흡수된 당질을 에너지로 바꾸어줌으로써 피로감을 없애주고 온몸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정력,간기능,시력을 높여주고 손발냉증, 변비, 요통이 사라지며 강한 항암작용 및 다이어트, 미백효과, 중풍, 신경통, 당뇨병 등에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결과 마늘의 주요성분인 알리신에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작용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장 · 장정 · 식욕부진 · 정장 · 변비 · 보온 · 향균 · 구충 · 정신안정 · 이뇨 · 혈압강화 · 각기 · 신경통 · 신경마비 등에 효험이 있다. - 이시진의 본초강목 -

100% 토종마늘은 무엇이 다른가?

▷ 건강식 또는 양념으로 써온 식물로 다양한 약리 작용을 한다.
▷ 장(腸)에서 흡수가 잘되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한다.
▷ 세포내 침투가 잘되고 성기능을 강화 시킨다. 혈액순환이 잘된다.
▷ 항암작용을 한다. 성인병 예방과 정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
▷ 고혈압은 낮추고 저혈압은 정상치로 끌어올린다.
▷ 비타민C와 섭취하면 당뇨에 효과가 있다.
▷ 인체내 지방을 분해해 비만 예방에 특효가 있다.
▷ 만성 감염에 효험이 있다.
▷ 비만, 심장병 예방에 특효.
▷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 표준소비자가 특별분할 : 42,000원×4개월= 168,000원(6개월분)
◎ 공주양잠농업협동조합 직거래 사업단 02)755-9821. 080-200-4545